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학교에 보급

전북교육청 등 4개 시·도교육청 공동 편찬... 2학기부터 수업 활용
김승환 교육감 “역사교육에 최선... 초등 역사 교재도 내년 보급”

전북도교육청이 지난 20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편찬작업을 마무리하고, 도내 일선 학교 직속 기관 등에 보급했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응하기 위해 도교육청 주도로 세종, 광주, 강원교육청 등 4개 교육청이 공동 제작에 착수한 지 2년 6개월만이다.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는 중학교용 ‘주제로 보는 역사’, 고등학교용 ‘주제로 보는 한국사’ 등 2권으로, 도내 중2, 고1 전체 학생에게 보급했으며, 학교에서는 2학기부터 자율적으로 이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일 오전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이 이 교재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단편적으로 기억하기보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면서 당시의 시대적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와 구성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역사 변화가 곧 나의 삶이라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전북도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의 역사 교육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역사 보조교재 편찬 계획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올해는 초등학교 역사 보조교재를 편찬해 내년에 학교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초등학교 역사 보조교재 편찬에도 교육감이 직접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세계시민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전북의 주민으로서 당당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 교육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학생들에게 보급된 중학생용 ‘주제로 보는 역사’는 8개 영역 36개 주제와 지역사 영역 13개 주제로 구

성했으며, 고등학생용 ‘주제로 보는 한국사’는 7개 영역 80개 주제와 지역사 영역 11개 주제로 구성됐다.

보조교재 집필에는 교수 13명, 교사 22명 등 총 35명이 참여했으며, 원고 집필 및 검토, 수정, 심의, 검사, 인쇄 등 2년 반의 긴 여정을 거쳐 도내 학생들의 손에 전달됐다. /김재훈 기자



김승환 교육감이 20일 오전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WISET전북지역군산대사업단이 지난 19일 군산대학교 체육관 내 웰니스홀에서 '2018 Girls' Engineering Week' (이하 GEW) 행사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인재의 역할’

WISET전북지역군산대사업단, 여고생 대상 GEW 행사

WISET전북지역군산대사업단(단장 박성신)이 지난 19일 군산대학교 체육관 내 웰니스홀에서 지역 여고생 250여명을 대상으로 '2018 Girls' Engineering Week' (이하 GEW) 행사를 열었다.

전국 9개 WISET지역사업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재)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올해는 7월 18일~27일을 '여학생 공학 주간'으로 정하고, 이 중 하루를 선택해 GEW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전북지역 WISET사업 주관대학인 군산대학교는 19일을 '여성공학인의 날'로 정해 공학분야에 대한 비전을 소개하고 학과별 소개, 산업체 탐방 및 기술체험 등을 통해 도내 여고생들에게 공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올해 GEW 행사에는 군산영광여고, 군산여고, 전주제일고, 진안제일고, 군산중앙여고, 원광여고의 여고생 250여명이 신청했다.

행사는 광병선 군산대학교 총장의 격려사로 시작해서, 여성공학인의 롤모델인 포스코 광안연 구인프로그래머 김희 상무부의 '4차 산업혁명시대, 여성인재의 역할' 특강으로 이어졌다.

참여 여학생들은 나노화학공학, 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건축공학, 전기공학 등 5개 전공별 선배와의 멘토링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대두식품, 세아베스틸, JIAT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지역산업체 4곳의 현장탐방 및 기술체험을 하며 더운 여름날을 보냈다. /군산=김정훈 기자

유라시아 국가 국제협력 강화한다

전북대, 유라시아 경제인협회 창립... 학생 교육·취업 협력 등

그동안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을 통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라트비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 다채로운 교류를 하며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보조를 함께한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유라시아 국제협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유라시아 지역 경제인들과 진출을 희망하는 200여 개 기업이 모여 (사)유라시아 경제인협회를 창립하면서 유라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을 맺어 온 전북대가 학생 교육 협력 등에 함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날 이남호 총장도 협회 창립 출범식에 함께해 참여 기업들과 환담을 나누고, 유라시아 진출을 위한 대학

기업 간 협력에 뜻을 같이 했다.

유라시아 국가들은 풍부한 자원 등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인협회와의 교류가 전북대만의 모험생 양성에 큰 도움이 되고, 정부의 북방정책에도 궤를 같이 하면서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앞으로 경제 관련 기업 및 단체들과 교육적인 부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유라시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취·창업 분야의 실질적 교류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총장은 축사를 통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전략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산·학·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의 노력



지난 20일 유라시아 지역 경제인들과 진출을 희망하는 200여 개 기업이 모여 (사)유라시아 경제인협회를 창립했다.

도 매우 중요하다”며 “유라시아 경제인협회가 유라시아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데 바른 길을 안내하는 나

침반으로서 신실크로드 구현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큰 획을 그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원주 지역 협동조합·생명운동 조명한다

원광대 원불교사상연구원, 25일 콜로키움 열어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 대학종점연구소에서는 오는 25일 국사편찬위원회 김소남 연구사를 초청, '생명운동과 공공성: 원주지역의 부라개발, 신헌, 생명운동을 중심으로'를 주

제로 제14차 콜로키움을 연다.

정부의 산업화정책으로 인한 이농현상 심화와 농촌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온 김소남 연구사는 사회적 현실이 농민과 도시민의

삶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점과 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이 파괴되면서 인간 본연의 삶의 조건이 악화된다는 점 등에 주목해 원주 지역의 협동조합 운동과 생명운동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도 원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협동조합 운동과 생명운동인 '한살림운동'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으며, 한살림운동의 창시자는 원주 출신 위당 장일순(1928~1994)으로 그는 어

려서부터 동양의 유·불·도가 사상을 공부하고, 집안의 신앙으로는 가톨릭을 믿었으며, 해월 최시형의 동학사상에서도 영향을 받았다.

특히 이번 콜로키움에서는 근대성에 입각한 개발주의 및 '생산력주의'에 대해 비판적인 성찰과 장일순의 노자·동학사상을 재조명함으로써 1980년 초 '생명의 세계관 확립과 협동적 생존의 확장'이라는 생명운동이 논의된다. /익산=우병희 기자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최종 합격자 191명 발표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 20일 2018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91명을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1,630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하였으며, 그 중 필기시험에 합격한 213명이 면접시험을 거친 결과, 191명이 최종 합격했다.

최종 합격자는 교육행정 119명(일반 111명, 장애 5명, 저소득층 3명), 사서 13명, 공업(일반기계-일반 5명, 일반전기-일반 5명), 시설(건축-일반) 10명, 공업(일반기계-고졸 1명, 일반전기-고졸 1명), 시설(건축-고졸) 2명, 운전 35명이다.

합격자의 남녀 비율은 각각 남성

50.3%, 여성 49.7%이었으며, 31세 이상이 32.5%로 나타났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도교육청에서 임용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며, 8월 27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북교육연수원에서 신규 임용 후보자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전북교육청은 앞으로 일선 교육 현장에 배치될 신규 임용 후보자들이 새로운 근무지에 잘 적응하고 행정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0월부터 1개월(공업·시설 직렬은 3개월) 간 실무수습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교통캠페인

과속,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